

정유, 석유화학 마진하락 고전

골드만삭스, 정유3사 영업실적 실망수준 ... S-Oil은 양호한 편

골드만삭스증권은 국내 주요 정유기업의 2/4분기 영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했다.

골드만삭스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마진하락과 공장 가동중단 여파로 SK와 GS홀딩스, S-Oil 등 정유기업의 2/4분기 영업실적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골드만삭스는 석유화학제품 마진 변동에 민감한 SK의 2/4분기 순이익이 전기대비 14% 감소한 3320억원, GS홀딩스는 46% 감소한 6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.

화학제품 마진하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S-Oil도 2/4분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3%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.

하지만, 대규모 공장 가동중단에 따라 S-Oil의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% 감소한 1690억원을 나타낸 것으로 예상했다.

골드만삭스는 SK와 GS홀딩스에 대해 <시장 수익률>, S-Oil에 대해 <시장 수익률 하회> 투자의견을 제시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7/13>